

##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Style,  
Marital Conflict, Caring Behavior  
and Child Behavior Problems

강 차 연\*\*

Kang, Cha Yeun

장 연 집\*\*\*

Chang, Yeon Zi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attachment styles of married mothers influence their marital conflicts and caring behavior and the behavior problems of their children. Subjects were 60 mothers and their 60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were analyzed with correlation, multiple analysis of variance and path analysis. Mothers with unstable attachment styles had more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and they had more serious marital conflicts. Mother's with preoccupied attachment styles experienced more marital conflict than all other styles. Seriousness of marital conflict was related to negative caring behavior and negative caring behavior was related to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There were direct paths between the attachment style of mothers and both externalized and internalize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in the clinical group.

\* 본 논문은 1999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I. 서론

생후 초기의 어머니와 자녀관계는 이후 일생 동안 인간을 포함한 주변의 대상들과 관계맺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해 유아나 아동이 양육자와 어떠한 정서적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은 그들간에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일생동안의 행동이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예언요인이 될 수 있다.

Bowlby는 어렸을 때 주관적으로 경험된 부모와 자신에 대해 기대되는 역할이 내면화되어 이후 성인기에서의 상호작용, 예를 들면 부부간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양육행동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이를 내적 수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Crowell & Feldman, 1991).

내적 수행모델 개념은 부모의 영유아기 경험과 이후 부모로서의 행동사이의 연계과정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즉 영아가 자신과 양육자에 대해 세우게 되는 정신적 표상으로서 생후 약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그 기초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영아는 애착인물의 가능한 행동을 예측하고 해석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계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아가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각기 다른 내적 실행모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내적 수행모델은 생후 1년 내에 형성되지만,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애착대상과 자아에 대한 내적 수행모델은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점차 정교화되고 수정되어지기는 하지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애착대상에 대한 신뢰감은 아동이 의지의 통제를 받기 이

전인 감각운동기에 형성된 것이어서 변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애착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생후 초기 몇 년 동안에 경험하는 양육자의 정서적 반응성이 건강한 성격을 형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따라서 애착인물이 유아의 편안함과 보호 욕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대한 독립적 탐색 욕구를 존중한다면 유아는 자기의 내적 수행모델을 가치있고 자기 신뢰적인 것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반면 부모가 유아에게 편안함을 주거나 탐색 시도를 거부한다면 유아는 자신의 내적 수행모델을 무가치하거나 보잘 것 없는 것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애착은 영아기나 아동기에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한번 형성된 애착은 계속 유지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애착의 세대간 전이가 나타나게 된다(Steele & Steele, 1998)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관계는 결혼배우자 선택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결혼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Scharff, 1995 ; Scharff & Scharff, 1991). 그리고 부부간의 불화나 결혼갈등의 정도는 자녀의 발달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성영혜, 1993 ; Belsky, 1984 ; Bretherton, 1991 ; Pianta & Lothman, 1994). 즉 외적으로 표현된 부부간에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낮으면 이 어머니와 자녀와의 애착관계와 자녀의 사회성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반면(유은희, 1991 ; Howes & Markman, 1989), 부부간의 결혼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문제 발생가능성은 더 높아진다(Cunnings & Davies, 1994 ; Jenkins & Smith, 1991). 아동기 행동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때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

적 요인 중 기질적이지 않은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부모가 주는 영향으로 아동이 출생이후 가장 많은 정서적 교류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은 아동기 행동문제와의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혼갈등을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갈등을 겪지 않는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고 따듯함이 덜하며, 훈육에 있어서도 비일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자녀에게 거부와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자녀의 욕구에 대해 반응을 덜 하기 때문이다(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일관적이지 못하고 통제를 강요하며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한 자녀들에 비해 불안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문제와 더불어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

이처럼 결혼갈등은 부부간 관계의 문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이에 따른 관계패턴이라는 성인의 내적 수행모델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배우자에 대한 관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애착패턴을 보이므로써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 결혼갈등은 아동의 행동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유은희, 1990, 1991 ; 장희숙, 1997 ; Bowlby, 1988; Peterson과 Zill, 1985).

어머니가 어린시절 경험한 자신의 부모가 보여준 태도나 행동이 내재화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나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과 이 경험에 대한 현재의 마음상태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결혼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과 함께 양육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아동의 행동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생후 초기 인생에서 관계맺는 방식은 결혼 후 부부간의 적응과 갈등, 그리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이것이 다시금 자녀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Grossman & Grossman, 1991 ; Hadley, Holloway, & Mallinckrodt, 1993 ; Strand & Wahler, 1996).

따라서 어머니의 행동은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내적 수행모델에 의해 인도되고, 그것은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 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두 사람 관계의 질적 특성은 내면화되어 아동의 내적 수행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관계형성 경험에 대한 아동의 기대와 평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의 애착형성을 결정하게 된다. (Greenberg & Michell, 1983 ; Sroufe & Fleeson, 1986).

Crowell과 Feldman(1988, 1989)은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개념과, 즉 내적 수행모델이 자녀와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상아동집단에서는 55%의 어머니가 불안정한 내적 수행모델로 분류된 반면, 임상아동집단의 경우에는 90%의 어머니가 불안정한 내적 수행모델을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정한 애착형태가 자녀의 행동문제발달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Cowan 등(1996)도 역시 부모의 애착사와 어린 자녀의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간의 구체적인 연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애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아동이 3.1세일 때 AAI를 사용하

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을 평정하고 2년 후 아동의 행동에 대한 유치원 교사평정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수행모델은 학령전기에 관찰된 부부의 결혼의 질이나 양육유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고, 초등학교에서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재화 행동문제의 강력한 예언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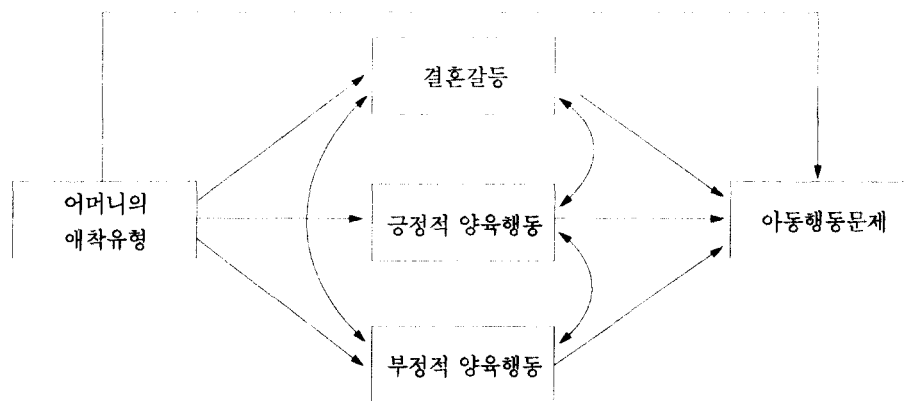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상 아동집단과 임상 아동집단에 있어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결혼갈등,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고,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언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 봄으로써 아동의 제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들을 이해하고, 아동의 행동문제에 개입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어머니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상의 관련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아동의 행동문제발생에 있어 주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는 요인은 바로 부모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요인 중에서도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체계를 통제하고 있는 애착의 내적 수행모델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문제까지의 연계성에서 볼 때 어머니의 내적 수행모델이 부부간의 적응정도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 함께 얼마나 아동의 행동문제를 직접, 간접적으로 예언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들은 외국의 연구를 포함해 주로 학령전 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어머니의 내적 수행모델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 질문지에 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행동문제가 표출될 가능성이 많이 학령기 아동들을 다루고, 보다 심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애착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는 정상 아동집단과 임상 아동집단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는 정상 아동집단과 임상 아동집단에 따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내적 수행모델에 대한 Bowlby의 이론에 근거하여 어린 시절에 형성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의 결혼적응이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것이 다시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 각각의 독립변인이 되며 동시에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의 독립변인이 되는 직, 간접적인 인과적 경로모형을 가정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모든 어머니 변인의 종속변인이 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어머니의 애착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가설적 경로모델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아동 60명(연령범위 : 75개월-148개월)과 그들의 어머니 60명(연령범위 : 31세-53세)을 대상으로 정상 집단 30쌍과 임상집단 30쌍이었다. 정상 아동집단의 경우에는 행동 및 정서상의 문제로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아온 적이 없는 아동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상 아동집단의 경우에는 행동 및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병원 신경정신과를 찾아온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집단의 아동들 모두 지적 능력의 이상과 기질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들도 지적 문제와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로 제한하였다.

대상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정상집단은 8.7세(표준편차 1.5세)였으며, 임상집단은 8.8세(표준편차 1.8세)이었다. 아동의 학년은 정상 및 임상

집단 모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저학년은 18명(60%),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고학년은 12명(40%)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이 남아가 각각 18명(60%)과 22명(73%), 여아가 각각 12명(40%), 8명(27%)로 두 집단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다. 그리고 출생순서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첫째, 외동아, 둘째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나이는 정상집단의 경우 36.2세(표준편차 2.1세, 범위 32세-44세), 임상집단의 경우 37.9세(표준편차 4.0세, 범위 31세-53세)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평균나이는 정상집단 40.0세(표준편차 2.5세, 범위 34세-45세), 임상집단 41.1세(표준편차 4.5세, 범위 34세-48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년수는 정상집단 10.7년(표준편차 2.1년, 범위 8년-15년)과 임상집단 11.1년(표준편차 2.2년, 범위 8년-17년)이었으며,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는 각각 8명(27%)과 9명(30%)으로 나타났다. 정

상집단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이상 21명(70%)과 고졸 9명(30%)이었으며, 임상집단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이상 14명(47%), 고졸 14명(47%), 중졸이하 2명(6%)였다.

아동의 나이, 성별, 출생순서와 어머니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직업유무,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모든 변인에 있어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성인 애착면접

어머니의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eorge, Kaplan과 Main(1996)이 개발한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 AAI)을 사용하였다. 성인애착면접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순서대로 질문을 하게 되고 추후 심층적 질문이 수반된다. 이 면접에서 어머니들은 각각의 부모와 자신의 아동기 때 관계를 설명하는 5개의 단어나 문구를 제시하도록 질문받고, 이 각각의 단어나 문구를 지지하는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게 된다. 또 어느 부모와 더 가깝다고 느꼈는지, 왜 그런지, 아동기동안 거부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든 부모가 위협한 적이 있었는지,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본인의 성격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와 중요한 상실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된다.

면접의 분석은 녹음된 면접내용을 전부 전사한 뒤 Main과 Goldwyn(1998)의 성인애착 채점 및 분류체계에 의해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처음의 두 단계에서는 각각의 부모와의 경험과 이러한 경험과 관련한 현재의 마음상태를 9점척

도를 이용하여 평정하게 된다.

아동기 동안의 부모와의 경험에 대한 분석은 애정(loving), 거부(rejecting), 그리고 역할전도(involving)의 세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방임(neglecting)과 성취압력(pressure to achieve)요인이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애착을 분류하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에 대한 현재의 마음상태에 대한 분석은 전반적인 애착에 대한 가치절하(overall derogation of attachment), 회상의 어려움 주장(insistence on lack of recall), 초인지적 과정(metacognitive processes), 사고과정의 수동성(passivity of thought processes), 상실에 대한 공포(fear of loss), 미해결된 상실unresolved loss), 미해결된 외상(unresolved trauma), 트랜스크립트의 일관성(coherence of transcript), 그리고 마음의 일관성(coherence of mind) 9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일단 아동기 경험과 현재 마음상태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3번째 단계에서는 이 평정과 함께 애착차원에서 어머니의 전반적인 마음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4가지 애착유형중 한 가지로 질적분류를 하게 된다. 애착유형의 종류는 안정-자율형(F), 거부형(Ds), 몰입형(E), 그리고 미해결형(U)으로 범주화되는데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 (1) 안정-자율형(Secure-autonomous, F)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인생초기의 애착관계와 그것의 영향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성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구체적인 기억에 의해 지지되고, 유창하며,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험에 대해 자신과 타인의 영향을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거부형(Dismissing, Ds)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초기 애착경험이 자신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대해 기억해낼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애착관계를 이상화시키거나 평가절하함으로써 애착경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3) 몰입형(Preoccupied, E)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애착관련 경험이나 부모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도 못하고 일관적으로 설명해내지도 못한다. 이들은 과거경험이나 부모에 대해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애착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

(4) 미해결형(Unresolved, U)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흔히 현재의 일상생활과 조화될 수 없는 애착관련 외상을 경험했다. 따라서 애착인물을 죽음으로 상실한 사람들은 이유없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 유별나게 찬양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준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는다. 성폭력이나 신체적 학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도 미해결형에 포함된다.

## 2) 결혼갈등

어머니의 결혼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anier(1976)가 만든 부부관계 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이민식과 김중술(1996)이 예비 표준화 연구를 통해 한국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이민식과 김중술(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계수가 .89에서 .76이었으며, 조

은영(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 계수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척도는 3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결혼관계에서의 적응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에 따라 0에서 1 혹은 0에서 5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생활에 갈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척도는 부부간의 의견일치도, 결혼만족도, 부부옹집력, 애정표현의 정도라는 4가지 하위측정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자녀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한국상황에 맞게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문항 양호도 분석(Cramer's V = .50-.95),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 계수 = .62-.81)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각 문항은 1에서 5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반반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순으로 평가된다. 총 51문항,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일관성있는 규제가 포함된다.

## 4) 아동행동문제

아동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를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 K-CBCL)

를 사용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로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시사한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계수 .62에서 .82까지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행동, 신체적 증상, 그리고 위축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내재화 행동문제, 비행과 공격성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외현화 행동문제, 그리고 주의집중문제 행동과 사회적 미성숙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 행동문제의 3가지 행동문제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1998년 2월 9일부터 1999년 2월 24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정상집단의 경우, 먼저 초등학교와 학교 이외의 사설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뒤 희망자들에 한해 전화를 통해 일정을 정하고 만났다. 면접실시는 초등학교 관내 보건소 상담실, 사설기관 상담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임상집단의 경우에는 자녀의 행동문제로 인해 대학병원 정신과를 찾아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병원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성인애착면접, 결혼갈등과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지, 그리고 아동행동문제에 관한 평정은 동일한 날에 실시되었으며, 실시시

간은 평균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었다.

모든 면접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양해를 구한 뒤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그 다음 모든 면접내용을 전사한 후 Main과 Goldwyn (1998)의 성인애착 채점 및 분류체계를 토대로 성인애착면접 연수에 참가한 연구자와 2명의 전문가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세 명의 분석가가 개별적으로 면접내용을 분석한 뒤 분석자간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30개의 사례에 대한 본 연구자와 분석가 1명간의 일치도와 또다른 30개의 사례에 대한 본 연구자와 또다른 분석가 한명간의 일치도를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분석일치도는 .88이었다. 이견을 보였던 트랜스크립트는 다시 상세한 토론을 거쳐 조정하였다.

### 4. 자료처리

연구대상자들의 성인애착유형분포와 일반적인 배경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그리고 Cramer's V를 계산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Cramer's V, 평균 및 표준편차, 다변량검증 및 다변량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상관분석을, 그리고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 분석을 하였다. 모든 자료분석은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 애착유형이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효과

#### 1) 어머니 애착유형의 분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애착유형의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정상집단의 경우 안정-자율형이 63%(19명)로 가장 많았고 거부형이 27%(8명), 미해결형이 10%(3명)순이었으며



〈표 1〉 정상 및 임상 집단에서의 4가지 애착유형 분포

	정상 집단	임상 집단	전 체
안정-자율형	19 ( 63%)	10 ( 33%)	29 ( 48%)
불안정-거부형	8 ( 27%)	7 ( 23%)	15 ( 25%)
불안정-몰입형	0 ( 0%)	7 ( 23%)	7 ( 12%)
불안정-미해결	3 ( 10%)	6 ( 20%)	9 ( 15%)
전 체	30 (100%)	30 (100%)	60 (100%)

Cramer' V = 0.425\*

\*  $p < .05$

몰입형은 0%로 한 명도 없었다. 한편 임상집단의 경우 안정-자율형은 33%(10명), 거부형은 23%(7명), 몰입형은 23%(7명), 그리고 미해결형은 20%(6명)로 나타났다. 정상 집단과 임상 집단에서 애착유형의 분포가 다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Cramer의 V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검증을 시행한 결과 정상집단과 임상 집단은 애착유형의 분포 면에서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뒤이어  $\chi^2$ 를 통해 각각의 애착 유형에서 두 집

단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해본 결과, 불안정-몰입형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고 나머지 세 유형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네 가지 애착유형을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누어 Cramer의 V를 통해 재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정상집단의 경우에는 안정형이 더 많은 반면 임상 집단에는 불안정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정상 및 임상 집단에서의 2가지 애착유형 분포

	정상 집단	임상 집단	전 체
안정형	19 (63%)	10 (33%)	29 (48%)
불안정형	11 (37%)	20 (67%)	31 (52%)
전 체	30 (100%)	60 (100%)	60 (100%)

Cramer' V = 0.267\*

\*  $p < .05$

2)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과의 관계  
정상 및 임상 집단에서의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갈등의 하위영역들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하였다(〈표 3〉 참조). 결혼 갈등에 미치는 애착유형의 주효과는 의견일치와 애정표현의 경우에는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그리고 결혼만족과 부부옹집은 .01의 유의도 수준에서 각각 유의미하였다. 또 사후분석 과정에서 실시한 Tukey 검증 결과 의견일치는 불안정-몰입형보다는 불안정-미해결형이 그리고 불안정 몰입형보다는 불안정-거부형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반면 결

〈표 3〉 정상 및 임상 집단에서의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과의 관계

변량원	종속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도	Tukey 검증
집단	의견일치	12.63	1	12.63	.20	.659	
	결혼만족	1.64	1	1.64	.04	.850	
	부부응집	4.41	1	4.41	.27	.608	
	애정표현	8.24	1	8.24	.94	.336	
애착유형	의견일치	750.02	3	250.01	3.89	.014*	2 > 4 > 3
	결혼만족	813.40	3	271.13	5.95	.001**	2, 1, 4 > 3
	부부응집	252.39	3	84.13	5.09	.004**	1, 2, 4 > 3
	애정표현	107.42	3	35.81	4.09	.011*	1, 2, 4 > 3
집단 *	의견일치	47.75	2	23.87	.37	.691	
	결혼만족	.88	2	.44	.01	.990	
	부부응집	5.77	2	2.88	.17	.841	
	애정표현	5.49	2	2.75	.31	.732	

\*  $p < .05$ , \*\*  $p < .01$

혼만족, 부부응집, 그리고 애정표현은 불안정-물입형이 나머지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의견일치의 경우 안정-자율형은 나머지 불안정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혼만족, 부부응집, 그리고 애정표현에 있어서 안정자율형, 거부형, 미해결형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3)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정상 및 임상 집단에서의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애착유형과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주효과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는 없었으며, 집단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정상 및 임상 집단에서의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아동 행동문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유형의 효과는 아동의 행동 문제 전 수준에 걸쳐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집단의 주효과 경우, 성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신체증상과 비행의 경우에는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사고의 문제는 .01의 유의도 수준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001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임상집단의 아동들은 성문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상집단에 비해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정상 및 임상 집단에서의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

〈표 4〉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집단과 어머니 애착유형의 주효과

변량원	종속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유의도
집단	위축	93.09	1	93.09	7.34	.009**
	신체증상	36.99	1	36.99	5.62	.21*
	우울/불안	336.25	1	336.25	18.28	.000***
	사회적 미성숙	190.48	1	190.48	18.39	.000***
	사고의 문제	34.50	1	34.50	8.62	.005**
	주의집중문제	355.88	1	355.88	26.32	.000***
	비행	23.83	1	23.83	7.12	.010*
	공격성	604.60	1	604.60	15.46	.000***
	성문제	.19	1	.19	.16	.693
	정서불안정	237.01	1	237.01	17.06	.000***
	내재화문제	1130.69	1	1130.69	17.03	.000***
	외현화문제	868.49	1	868.49	15.34	.000***
	혼합 문제	1067.08	1	1067.08	27.04	.000***
	총행동문제	12124.51	1	12124.51	24.65	.000***
	애착유형	위축	6.77	1	6.77	.53
신체증상		8.38	1	8.38	1.27	.264
우울/불안		20.35	1	20.35	1.11	.297
사회적 미성숙		1.00	1	1.00	.10	.758
사고의 문제		9.75	1	9.75	2.43	.124
주의집중문제		4.78	1	4.78	.35	.555
비행		1.42	1	1.42	.42	.518
공격성		14.56	1	14.56	.37	.544
성문제		1.62	1	1.62	1.35	.251
정서불안정		25.93	1	25.93	1.87	.177
내재화문제		98.67	1	98.67	1.49	.228
외현화문제		25.06	1	25.06	.44	.509
혼합 문제		1.41	1	1.41	.04	.851
총행동문제		476.06	1	476.06	.97	.329

\*  $p < .05$ , \*\*  $p < .01$ , \*\*\*  $p < .001$

하였다. 앞서 애착유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분석하였을 때 모든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착유형을 안정과 불안정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체증상,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 외재화, 총문제 행동에서 집단과 애착유형

간 상호작용이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정상 집단의 경우에는 애착유형에 따라 아동의 신체증상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임상 집단은 안정형에 비해 불안정형이 신체증상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정상 집단의 경우에

〈표 5〉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집단과 어머니 애착유형간 상호작용 효과

변량원	종속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유의도
집단	위축	21.13	1	21.13	1.67	.202
*	신체증상	31.32	1	31.32	4.76	.033*
애착유형	우울/불안	53.31	1	53.31	2.90	.094
	사회적 미성숙	1.00	1	1.00	.10	.758
	사고의 문제	5.83	1	5.83	1.46	.232
	주의집중문제	25.12	1	25.12	1.86	.178
	비행	2.49	1	2.49	.74	.392
	공격성	203.69	1	203.69	5.21	.026*
	성문제	1.72	1	1.72	1.42	.238
	정서불안정	83.17	1	83.17	5.99	.018*
	내재화행동문제	277.06	1	277.06	4.17	.046*
	외현화행동문제	251.24	1	251.24	4.44	.040*
	혼합행동문제	36.12	1	36.12	.92	.343
	총행동문제	2281.48	1	2281.48	4.64	.036*

\*  $p < .05$

〈표 6〉 집단별 결혼갈등과 양육행동간 상관

	집단	의견일치	결혼만족	부부응집	애정표현
합리적 지도	정상	.16	.24	.21	.10
	임상	.05	.05	.15	-.15
애정	정상	.35	.49**	.31	.26
	임상	.04	.03	.16	-.05
성취	정상	.11	.11	.12	.11
	임상	-.09	-.11	.02	-.30
적극적 참여	정상	.12	.17	.24	.21
	임상	-.05	-.06	-.01	-.27
일관적 규제	정상	.23	.23	.09	.10
	임상	-.26	-.21	-.29	-.23
권위주의적 통제	정상	-.48**	-.38*	-.31	-.22
	임상	-.26	-.24	-.31	-.26
과보호	정상	-.17	-.20	-.12	.08
	임상	-.25	-.27	-.28	-.39*

\*  $p < .05$ , \*\*  $p < .01$

는 애착유형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그리고 총 행동문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임상 집단은 안정형에 비해 불안정형이 공격성, 정서불안정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그리고 총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아동행동문제간의 상관

### 1) 결혼갈등과 양육행동간의 상관

정상 아동집단과 임상 아동집단으로 구분하여 어머니들의 결혼갈등과 양육행동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정상 집단의 경우에 결혼 만족과 애정은 정적인 상관( $r=.49, p<.01$ )을 나타내었으며, 의견일치와 권위주의적 통제( $r=-.48, p<.01$ ), 결혼만족과 권위주의적 통제( $r=-.38, p<.05$ ) 간에는 부적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임상 집단의 경우에는 애정표현과 과보호 간에서만 유의하게 부적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r=-.39, p<.05$ ). 상관계수가 정상과 임상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Z분포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상관계수들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6>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 2) 결혼갈등과 아동행동문제간의 상관

정상 아동집단과 임상 아동집단으로 구분하여 결혼갈등과 아동행동문제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정상집단의 경우에서만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면, 부부간의 의견일치는 아동행동문제 중 위축( $r=-.47, p<.01$ ), 신체증상( $r=-.61, p<.01$ ), 공격성( $r=-.60, p<.01$ ), 외현화문제( $r=-.59, p<.01$ ), 그리고 총 행동문제( $r=-.54, p<.01$ )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사회적 미성

숙( $r=-.38, p<.05$ )과 정서불안정( $r=-.45, p<.05$ )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부간의 결혼만족은 공격성( $r=-.44, p<.05$ ), 신체증상( $r=-.44, p<.05$ ), 외현화문제( $r=-.42, p<.05$ ), 그리고 총 행동문제( $r=-.39$ )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부응집은 신체증상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r=-.32, p<.05$ ), 애정표현은 신체증상( $r=-.48, p<.01$ ), 공격성( $r=-.45, p<.01$ )과, 그리고 외현화 문제( $r=-.42, p<.05$ )와 부적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부부간의 의견일치가 낮을수록 아동의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공격성, 정서불안정, 외현화 행동문제, 및 총 행동문제는 높게 나타나고,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신체증상, 공격성, 외현화 행동문제, 및 총 행동문제는 높게 나타나며, 부부간 응집이 낮을수록 신체증상이 높게 나타나고, 부부간에 애정표현을 적게 하는 경우일수록 신체증상, 공격성,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높게 나타났다.

구해진 상관계수가 정상과 임상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Z분포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상관계수가 정상과 임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의견일치와 신체증상의 경우 임상 집단에 비해 정상집단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정상집단의 경우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될수록 아동이 신체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임상 집단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의견일치가 높을수록 아동의 신체증상이 낮아지는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리고 의견일치와 외현화 문제의 경우 정상집단은 부부간의 의견일치가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임상 집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집단별 결혼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간 상관

	집 단	의결일치	결혼만족	부부응집	예정표현
위축	정 상	-.17**	-.25	-.23	-.32
	임 상	-.02	-.01	-.09	-.09
신체증상	정 상	-.61**	-.44*	-.37*	-.48**
	임 상	-.07 <sup>a</sup>	-.18	-.07	-.07
우울/불안	정 상	-.04	-.06	.30	-.11
	임 상	.19	.06	.07	.13
사회적 미성숙	정 상	-.38*	-.17	-.15	-.04
	임 상	.15	.23	.19	.03
사고의 문제	정 상	-.35	-.16	.09	-.14
	임 상	.16	.03	.19	.14
주의집중문제	정 상	-.26	-.31	-.14	-.18
	임 상	.16	.06	-.03	.04
비행	정 상	-.16	-.14	.19	-.10
	임 상	-.15	-.14	-.31	.11
공격성	정 상	-.60**	-.44*	-.20	-.45**
	임 상	.05	-.11	-.12	-.04
성문제	정 상	-.15	-.32	.29	-.36
	임 상	-.07	.01	-.10	-.03
정서불안정	정 상	-.45*	-.27	-.04	-.23
	임 상	.07	-.07	-.12	.02
내재화행동문제	정 상	-.35	-.23	-.01	-.29
	임 상	.06	-.03	-.03	.00
외현화행동문제	정 상	-.56**	-.42*	-.15	-.42*
	임 상	.00 <sup>a</sup>	-.12	-.18	-.01
혼합행동문제	정 상	-.34	-.26	-.16	-.12
	임 상	.17	.15	.08	.04
총행동문제	정 상	-.54**	-.39*	-.14	-.36
	임 상	.09	-.01	-.06	.03

\*  $p < .05$ , \*\*  $p < .01$ <sup>a</sup>는 두 집단 간에 .0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

## 3)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간의 상관

정상 아동집단과 임상 아동집단으로 구분하여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정상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는 아동의 행동

문제와 상관이 없으나 임상 집단의 경우에는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외현화 행동문제 영역( $r = -.43$ ,  $p < .05$ )에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행동문제 영역에서의 임상 아동집단만의 두드러진 상관은 성취 영역( $r = -.36$ ,

p<.05)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두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애정은 외현화 행동문제(정상집단 : r=-.50, p<.01, 임상집단 : r=-.52, p<.01)와 혼합행동문제(정상집단 : r=-

.44, p<.05, 임상집단 : r=-.56,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권위적 통제는 외현화 행동문제(정상집단 : r=.52, p<.01, 임상집단 : r=.42, p<.05)와 혼합 행동문제

〈표 8〉 집단별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 상관

	집 단	합리적 지도	애 정	성 취	적극적 참여	일관적 규제	권위적 통제	과보호
위축	정 상	-.06	-.23	.22	-.00	.03	.58**	.25
	임 상	-.24	-.57**	-.10	-.00	.33	.52**	.31
신체증상	정 상	-.08	-.19	.10	-.02	.26	.40*	.14
	임 상	.18	-.01	.21	.28	.33	.08	.20
우울/불안	정 상	-.02	-.05	.16	.10	-.01	.38*	.19
	임 상	-.27	-.40*	-.20	-.23	-.06	-.20	.04
사회적 미성숙	정 상	-.11	-.31	.15	-.06	-.07	.70**	.50**
	임 상	-.23	-.44*	-.14	.01	.05	.54**	.50**
사고의 문제	정 상	.06	.02	.37*	.30	-.02	.35	.39*
	임 상	-.24	-.27	-.20	-.04	-.11	-.01	.01
주의집중 문제	정 상	-.15	-.49**	-.03	-.22	-.03	.60**	.48**
	임 상	-.38*	-.56**	-.26	.09	-.11	.46*	.35
비행	정 상	-.19	-.17	-.01	-.23	-.18	.20	.01
	임 상	-.40*	-.51**	-.40*	-.19	.19	.32	.06
공격성	정 상	-.17	-.53**	-.01	-.30	-.07	.55**	.12
	임 상	-.40*	-.46**	-.32	-.20	-.09	.42*	.21
성문제	정 상	-.13	-.38*	.02	-.19	-.25	.25	.05
	임 상	-.00	.12	.13	-.05	-.04	-.24	-.06
정서불안정	정 상	.12	-.11	.23	.18	.14	.35	.23
	임 상	-.40*	-.58**	-.35	-.33	.04	.43*	.07
내재화 행동문제	정 상	-.03	-.15	.20	.05	.08	.52**	.24
	임 상	-.16	-.43*	-.06	-.01	.22	.34	.21
외현화 행동문제	정 상	-.19	-.50**	.01	-.31	-.09	.52**	.11
	임 상	-.43*	-.52**	-.36*	-.21	-.02	.42*	.19
혼합 행동문제	정 상	-.14	-.44*	.06	-.16	-.05	.70**	.53**
	임 상	-.35	-.56**	-.22	-.05	.02	.55**	.46**
총행동문제	정 상	-.12	-.42*	-.11	-.14	-.08	.69**	.37*
	임 상	-.40*	-.59**	-.25	-.15	.05	.47**	.31

\* p < .05, \*\* p < .01

Δ는 두 집단 간에 .0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

(정상집단 :  $r=.70$ ,  $p<.01$ , 임상집단 :  $r=.55$ ,  $p<.01$ )와, 그리고 과보호는 혼합 행동문제(정상집단 :  $r=.53$ ,  $p<.01$ , 임상집단 :  $r=.46$ ,  $p<.01$ )와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상 집단과 임상 집단의 아동들은 모두 어머니의 애정적인 행동이 높을수록 외현화 행동문제와 혼합 행동문제는 적게 보이며, 반대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을수록 외현화 행동문제와 혼합 행동문제를 많이 보일 것이며,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가 심할수록 혼합 행동문제를 많이 보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해진 상관계수가 정상과 임상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Z분포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 지도와 정서불안정간의 상관계수가 정상과 임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합리적 지도와 정서불안정의 경우 관계의 강도(상관)가 정상 집단 보다 임상 집단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 집단의 경우에는 합리적이지만 못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상 집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 애착유형,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간의 경로탐색

어머니의 애착유형,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인과성이나 영향의 방향은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변인들간의 관계는 독립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애착에 대한 성인의 내적 수행모델이 어머니의 애착유형분류와 어머니의 후속행동 및 아동의 후속행동간의 인과관계를 제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애

착유형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연관된다는 다양한 경로를 평가하기 위해 경로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들이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및 혼합 행동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각각의 분석에서 어머니의 결혼갈등 요인 4가지와 자녀양육행동 7가지는 결혼갈등, 긍정적 자녀양육행동, 그리고 부정적 자녀양육행동의 3가지로 통합하였다. 즉 결혼갈등 4가지 요인의 점수를 합하여 하나의 결혼갈등 변인을 만들었으며, 합리적 지도, 애정,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적 규제를 합하여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설정하였고, 권위적 통제와 과보호를 합하여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의 13가지 요인들은 크게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그리고 혼합 행동문제로 통합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정상 아동집단의 어머니 애착유형과 아동행동문제간의 경로탐색

정상 아동집단을 행동문제별로 살펴보면,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를 보면, 부정적 양육행동과 내재화 행동문제간의 경로가 나타났으며( $=0.464$ ,  $p<.05$ ),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결혼갈등과 외현화 행동문제간의 경로가 나타났다( $=0.411$ ,  $p<.05$ ). 그리고 혼합 행동문제에서는 부정적 양육행동과 혼합 행동문제간에 경로가 나타났다( $=0.698$ ,  $p<.01$ ). 그러나 세가지 행동문제 모두에 있어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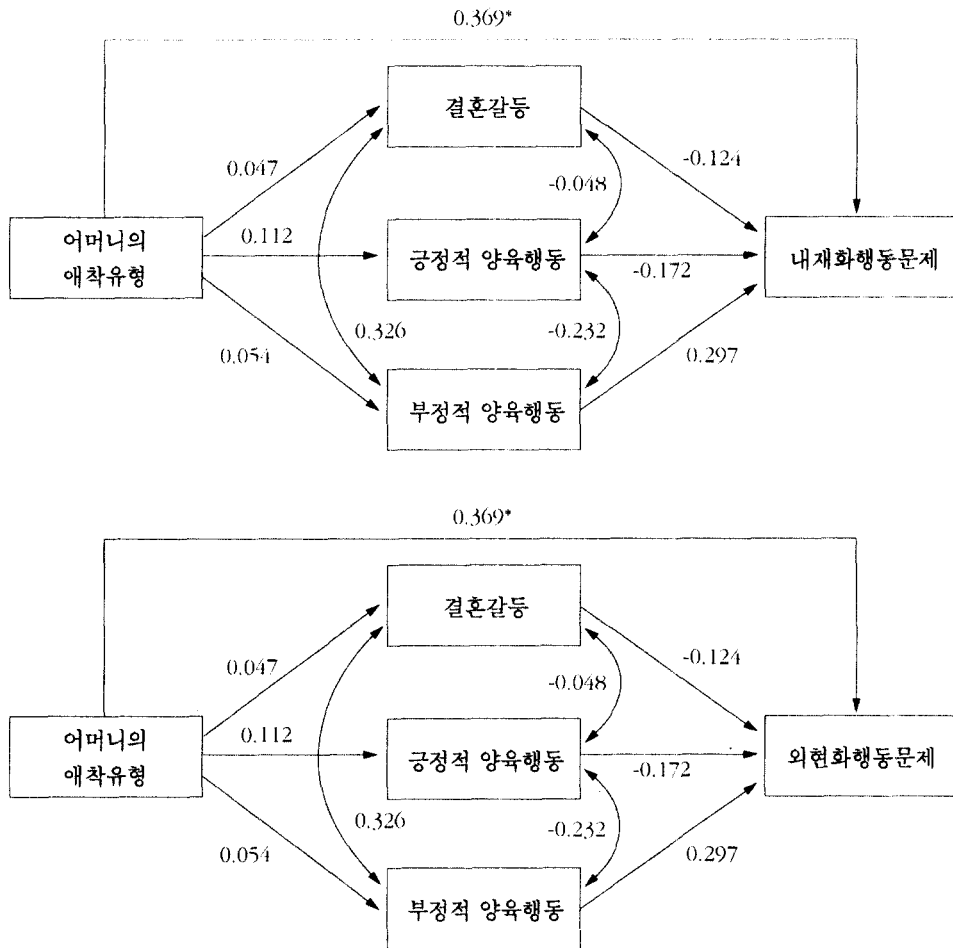
#### 2) 임상 아동집단의 어머니 애착유형과 아동행동문제간의 경로탐색

임상 아동집단을 행동문제별로 살펴보면, 내



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그림 2>를 보면,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간에 직접적인 경로가 있었다 ( $=0.369, p<.05$ ). 그리고 내재화 행동문제와 마찬가지로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도 임상 아동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유형간의 직접적인 경로가 있었다 ( $=0.326, p<.05$ ). 한편 임상 아동집단에서는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긍정적 양육행동과 외현화 행동문제간의 경로가 나타났다 ( $=-0.452, p<.05$ ). 한편 아동의 혼합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정상 아동집단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애착유형과의 직, 간접적인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임상 아동집단의 경우에는 결혼갈등과 부정적 양육행동간에 유의미한 경로가 있었다 ( $=0.342, p<.05$ ).



<그림 2> 임상 아동집단에서의 어머니 애착유형과 아동행동문제간의 경로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애착유형,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한 어머니의 애착유형은 임상 아동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그 어머니들이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불안정한 어머니의 애착유형은 정상집단에 비해 임상집단의 경우 아동의 행동문제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 아동집단에서 어머니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자녀의 신체증상,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그리고 총 행동문제의 정도는 정상 아동집단의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진 어머니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정상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들의 애착이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이것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연결되는데 있어 애착의 영향을 완화 또는 완충시켜줄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집단의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완충변인들의 중재적 영향을 받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와 연관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자녀의 행동문제간의 경로에 있어서도 임상 아동집단의 경우에는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 있어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어머니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행동문

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의 행동문제 원인을 살펴 보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을 살피고 이를 부모상담 등을 통해 다루어 주는 것이 자녀의 행동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의 애착이 불안정적일수록 부부간의 결혼갈등은 높았으며, 어머니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부간의 결혼갈등은 낮았다. 특히 몰입형의 어머니들이 나머지 유형의 어머니들에 비해 결혼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고 몰입되어 있는 애착이 불안정한 어머니의 경우 부부간의 적응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결혼갈등이 높고, 불안정한 애착유형인 몰입형의 어머니들이 모두 임상집단에 속해 있으며, 임상집단의 아동들이 행동문제를 보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임상 아동집단의 어머니가 갖는 결혼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애착유형을 제외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부부간의 의견일치, 결혼만족, 그리고 부부응집력 등 결혼적응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권위적 통제와 과보호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갈등이 높고 자녀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상과 임상 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애정과 권위적 통제는 자녀들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혼합행동문제와 같은 행동문제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 바, 자녀양육시 자녀의 행동문제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자녀의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따듯하

고 애정적인 태도를 촉진하고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상 아동집단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결혼만족이 높으면 긍정적 양육행동 중 애정도 높게 나타나고 결혼만족이 낮고 의견일치가 낮으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높게 나타나 결혼갈등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고 결혼갈등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정상 아동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권위주의적 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임상 아동집단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낮은 애정표현이 자녀에 대한 과보호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한편 결혼갈등이 임상집단 아동의 행동문제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임상집단 어머니들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혼합행동문제와 연관성을 갖는 바,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는 임상집단 어머니들의 결혼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자녀양육행동이라는 변인을 거쳐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임상집단에서는 정상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즉 행동문제가 심각한 임상집단에서 어머니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자녀의 행동문제를 줄이는데 효과적임이 제안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후속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와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증해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표본의 크기가 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이후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애착유형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Bowlby의 애착이론을 통계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원인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연구대상인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편파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기 보고형의 질문지를 통해 결혼갈등과 양육행동을 측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자녀가 행동문제로 병원이나 상담소에 의뢰되었을 경우,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방어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가 작아 결혼갈등과 자녀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할 때 이들 질문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 타당화한 요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볼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질문지 측정도구가 갖는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간 및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실제로 관찰하여 자기 보고식 질문지 도구가 갖는 한계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착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경로를 살펴보는데 있어 그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의 결혼갈등과 자녀양육행동을 살펴보았다. 내적 수호모델은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를 갖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결혼갈등의 정도는 이

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결혼적응정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아개념이나 효능감같은 개인적인 속성, 그리고 아동의 기질과의 관계연구도 후속연구에서는 이루어짐으로써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경로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완충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그 자녀만을 대상으로 애착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부모특성과 부모-자녀 세대간 전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아버지의 특성도 연구되어야 한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에의 참여가 증대되는 요즈음 아동의 행동의 질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내적 수행모델을 동시에 측정하여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경로와 비교하는 연구모형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시사되는 바는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중요한 설명변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임상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애착이 갖는 중요성이 정상집단에 비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애착변인 이외에도 결혼갈등이나 자녀양육행동 변인도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임상적으로 다룰 때, 이 아동들의 어머니가 갖는 변인들, 특히 애착이나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줌으로써 아동의 행동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성영혜(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희, 하은혜(1997).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유은희(1990).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울성 발달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1991). 성인자녀-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생 활변화의 적응-전생애적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여성연구(여성개발원)*, 111-143.
- 유은희, 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 이민식, 김중술(1996).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5(1), 129-140.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6(1), 80-97.

- 최해훈(1996).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표상유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lby, J.(1988). The role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 D. Scharff(199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pp. 381-392) Northvale : Jason & Aronson Inc.
- Bretherton, I.(1991). The roots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 9-32) London : Routledge, 9-32.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L.(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rowell, J. A., & Feldman, S. 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Crowell, J. A., & Feldman, S. S.(1989). Assessment of mother's working models of relationships : Some clinical implication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3), 173-237.
- Crowell, J. A., & Feldman, S. S.(1991). Mother'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97-605.
- Cummings, W. M. & Davies, P. T.(1991).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 Guilford.
- Epstein, S.(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1990). A Mediation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George, C., Kaplan, N., & Main, M.(1996). Adult Attachment Interview(3rd Eds.).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reenberg, J. R., & Mitchell, S. A.(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rossman, K. E. & Grossman, M.(1991). Attachment quality as an organizer of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in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93-114). London : Routledge.
- Howes, P., & Markman, H. J.(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 1044-1051.
- Jenkins, J. N. & Smith, M. A.(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793-810.
- Main, M.(1995). Recent studies in attachment : overview, with selected implications for

- clinical work. In S. Goldberg, R. Muir, & J. Kerr (Ed.), *Attachment theory :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407-471). Hillsdale, NJ : The Analytic Press Inc.
- Main, M.(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 2.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37-243.
- Main, M. & Goldwyn, R.(1998). Adult Attachment Scoring and Classification Systems(Version 6.3).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ital and the Family, 48*, 295-307.
- Pianta, R. C. & Lothman, D. J.(1994). Predicting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with epilepsy : child factors, disease factors, family stress, and child-mother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5*, 1415-1428.
- Scharff, D. E.(1996). *Object Relations Therapy and Practice*. Northvale : Jason and Aronson Inc.
- Scharff, D. E. & Scharff, J. S.(1991). *Object Relations Couple Therapy*. Northvale : Jason and Aronson Inc.
- Spanier, G. B.(1988). Assessing the strength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92-94.
- Sroufe, L. A. &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51-7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ele, H. & Steele, M.(1998). Attachment and Psychoanalysis : Time for a reunion. *Social Development, 7*(1), 92-119.
- Strand, P. S. & Wahler, R. G.(1996). Predicting maladaptive parenting : role of maternal object rel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1), 43-51.

〈부록 1〉 부부적응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애착유형	집단		의견일치	결혼만족	부부응집	애정표현
안정자율형	정상	평균	41.90	37.12	15.12	12.79
		(표준편차)	(6.50)	(5.78)	(3.47)	(2.86)
	임상	평균	41.70	37.80	15.40	12.90
		(표준편차)	(6.09)	(4.54)	(4.22)	(3.04)
	전체	평균	43.79	37.55	15.41	12.83
		(표준편차)	(6.44)	(5.30)	(3.67)	(2.87)
불안정 거부형	정상	평균	46.00	38.13	15.75	12.50
		(표준편차)	(5.53)	(3.76)	(2.25)	(2.78)
	임상	평균	47.29	38.14	17.29	13.14
		(표준편차)	(6.78)	(3.58)	(3.86)	(1.86)
	전체	평균	46.60	38.13	16.47	12.80
		(표준편차)	(5.95)	(3.54)	(3.09)	(2.34)
불안정 몰입형	임상	평균	35.43	26.00	9.29	8.86
		(표준편차)	(15.70)	(14.06)	(6.73)	(4.67)
	전체	평균	35.43	26.00	9.29	8.86
		(표준편차)	(15.70)	(14.06)	(6.73)	(4.67)
불안정 미해결형	정상	평균	49.67	38.33	14.67	12.00
		(표준편차)	(1.15)	(2.52)	(.58)	(1.00)
	임상	평균	48.17	39.17	15.17	14.00
		(표준편차)	(8.21)	(7.14)	(4.54)	(2.28)
	전체	평균	48.67	38.89	15.00	13.33
		(표준편차)	(6.56)	(5.80)	(3.61)	(2.12)
전체	정상	평균	45.67	37.70	15.43	12.63
		(표준편차)	(5.98)	(4.97)	(2.97)	(2.66)
	임상	평균	42.83	35.40	14.37	12.23
		(표준편차)	(10.39)	(9.32)	(5.51)	(3.57)
	전체	평균	44.25	36.55	14.90	12.43
		(표준편차)	(8.53)	(7.49)	(4.42)	(3.13)

〈부록 2〉 양육행동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애착유형	집단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 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적 규제
안정 자율형	정상	평균	37.11	33.84	24.42	22.68	23.89	22.16	11.68
		(표준편차)	(4.24)	(5.12)	(4.81)	(4.58)	(2.42)	(2.69)	(1.73)
	임상	평균	38.00	33.60	25.60	23.90	23.30	22.40	10.80
		(표준편차)	(5.81)	(6.75)	(8.66)	(7.88)	(3.43)	(3.37)	(3.36)
	전체	평균	37.41	33.76	24.83	23.10	23.69	22.24	11.38
		(표준편차)	(4.75)	(5.62)	(6.27)	(5.81)	(2.77)	(2.89)	(2.40)
불안정 거부형	정상	평균	36.38	34.88	26.38	26.13	24.88	23.63	11.13
		(표준편차)	(1.30)	(3.80)	(4.53)	(6.03)	(3.44)	(1.19)	(1.89)
	임상	평균	37.71	34.43	22.29	25.43	24.43	23.14	11.43
		(표준편차)	(4.03)	(4.39)	(4.61)	(6.90)	(3.69)	(4.06)	(2.30)
	전체	평균	37.00	34.67	24.47	25.80	24.67	23.40	11.27
		(표준편차)	(2.88)	(3.94)	(4.88)	(6.22)	(3.44)	(2.80)	(2.02)
불안정 물입형	임상	평균	38.86	35.00	27.29	28.29	24.14	23.71	12.71
		(표준편차)	(3.24)	(5.72)	(5.99)	(4.07)	(2.61)	(2.69)	(1.70)
	전체	평균	38.86	35.00	27.29	28.29	24.14	23.71	12.71
		(표준편차)	(3.24)	(5.72)	(5.99)	(4.07)	(2.61)	(2.69)	(1.70)
불안정 미해결형	정상	평균	37.67	37.33	21.67	22.67	25.00	22.00	12.00
		(표준편차)	(.58)	(.58)	(2.52)	(2.52)	(1.73)	(4.58)	(1.00)
	임상	평균	35.50	35.17	23.67	25.33	24.33	22.50	11.00
		(표준편차)	(3.83)	(9.20)	(8.02)	(6.89)	(3.78)	(4.32)	(1.10)
	전체	평균	36.22	35.89	23.00	24.44	24.56	22.33	11.33
		(표준편차)	(3.23)	(7.36)	(6.54)	(5.75)	(3.13)	(4.12)	(1.12)
전체	정상	평균	36.97	34.47	24.67	23.60	24.27	22.53	11.57
		(표준편차)	(3.43)	(4.58)	(4.64)	(4.97)	(2.64)	(2.60)	(1.70)
	임상	평균	37.63	34.43	24.83	25.57	23.97	22.90	11.43
		(표준편차)	(4.46)	(6.32)	(7.05)	(6.60)	(3.25)	(3.46)	(2.45)
	전체	평균	37.30	34.45	24.75	24.58	24.12	22.72	11.50
		(표준편차)	(3.96)	(5.47)	(5.92)	(5.87)	(2.94)	(3.04)	(2.09)



〈부록 3〉 양육행동평가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애착유형	집단		위축	신체 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과의 문제	주의집 중문제	비행
안정형	정상	평균	2.44	1.22	8.17	3.50	.28	3.61	1.05
		(표준편차)	(3.01)	(2.37)	(4.49)	(2.50)	(.57)	(2.48)	(1.11)
	임상	평균	4.00	1.50	11.20	7.10	1.20	7.70	2.00
		(표준편차)	(4.47)	(1.08)	(2.82)	(4.38)	(1.69)	(4.92)	(2.05)
	전체	평균	3.00	1.32	9.25	4.79	.61	5.07	1.39
		(표준편차)	(3.60)	(1.98)	(4.19)	(3.67)	(1.17)	(3.99)	(1.55)
불안정형	정상	평균	2.42	.92	7.58	3.33	.42	3.75	1.08
		(표준편차)	(2.54)	(1.16)	(2.54)	(2.10)	(.67)	(3.05)	(1.00)
	임상	평균	5.95	3.80	14.40	7.10	2.70	9.65	2.75
		(표준편차)	(4.02)	(3.64)	(5.36)	(3.65)	(3.15)	(4.21)	(2.49)
	전체	평균	4.63	2.72	11.84	5.69	1.84	7.44	2.12
		(표준편차)	(3.90)	(3.26)	(5.58)	(3.63)	(2.74)	(4.75)	(2.20)
전체	정상	평균	2.43	1.10	7.93	3.43	.33	3.67	1.07
		(표준편차)	(2.79)	(1.95)	(3.79)	(2.31)	(.61)	(2.67)	(1.05)
	임상	평균	5.30	3.03	13.33	7.10	2.20	9.00	2.50
		(표준편차)	(4.20)	(3.20)	(4.87)	(3.84)	(2.81)	(4.47)	(2.35)
	전체	평균	3.87	2.07	10.63	5.27	1.27	6.33	1.78
		(표준편차)	(3.82)	(2.80)	(5.11)	(3.64)	(2.22)	(4.53)	(1.94)

〈부록 3 계속〉 양육행동평가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애착유형	집단		공격성	성문제	정서 불안정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혼합 행동문제	총행동 문제
안정형	정상	평균	6.61	.67	4.00	11.67	7.67	7.11	28.56
		(표준편차)	(5.29)	(.84)	(2.99)	(8.06)	(5.92)	(4.54)	(19.06)
	임상	평균	9.90	.50	5.70	16.60	11.90	14.80	47.10
		(표준편차)	(8.63)	(.71)	(3.37)	(6.60)	(10.31)	(9.02)	(25.17)
	전체	평균	7.79	.61	4.61	13.43	9.18	9.86	35.18
		(표준편차)	(6.71)	(.79)	(3.18)	(7.82)	(7.86)	(7.36)	(22.84)
불안정형	정상	평균	5.25	.83	3.00	10.83	6.33	7.08	26.25
		(표준편차)	(4.56)	(1.27)	(2.05)	(4.91)	(5.22)	(4.93)	(16.77)
	임상	평균	14.80	1.20	9.55	23.80	17.55	16.75	65.95
		(표준편차)	(6.72)	(1.32)	(5.02)	(10.19)	(8.48)	(6.79)	(26.04)
	전체	평균	11.22	1.06	7.09	18.94	13.34	13.13	51.06
		(표준편차)	(7.56)	(1.29)	(5.23)	(10.63)	(9.17)	(7.71)	(29.94)
전체	정상	평균	6.07	.73	3.60	11.33	7.13	7.10	27.63
		(표준편차)	(4.98)	(1.01)	(2.66)	(6.88)	(5.59)	(4.61)	(17.91)
	임상	평균	13.17	.97	8.27	21.40	15.67	16.10	59.67
		(표준편차)	(7.63)	(1.19)	(4.85)	(9.67)	(9.36)	(7.50)	(26.88)
	전체	평균	9.62	.85	5.93	16.37	11.40	11.60	43.65
		(표준편차)	(7.32)	(1.10)	(4.53)	(9.75)	(8.77)	(7.66)	(27.82)